

## 최근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1995년~2001년 발표곡을 중심으로-

한 명 숙 · 이 지 원\*†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과 교수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전공\*

### A Study of Clothing Symbolism on the Last Popular Song Lyrics -on Lyrics by Produced 1995~2001s-

Myung-Sook Han and Ji-Won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2003. 7. 20. 접수 : 2003. 11. 15. 채택)

#### Abstract

Song is a significant message with organic combination of relics and melody. As such, songs could be an important way to deliver messages in the relics and melodies. Among the several kinds of songs 'popular song' is the most common and has the strongest effect on the public. On this purpose, total 700 songs published from 1995 to 2001 popular songs have been researched after extracting 100 songs chronologically in regards of broadcasting times, popularity rankings and records of yearly awards during its production year. These selected popular songs have been collected and studied before sampling the expression of the costume included in the relics. Clothes, hair styling, make-up, shoes & purses, accessories and body figure, etc. are covered In this study. As the recent symbolism embedded in the relics of popular songs is closely related with our generation background, public preference & dislike and the change of modern costume, it shows the symbolism of costumes evidently again.

*Key words: costume terminology(복식용어), popular song relics(유행가요), symbolism(상징성).*

#### I. 서 론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 여러 가지의 상징물 중에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물질·정신 문화인 복식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서 존재해왔다는 보편성과 가시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내면적 특성인 기분과 감정을 고찰하기에 적합한 상징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은 성, 연령, 직업, 국적, 사회적 계급, 종교, 정치적·경제적 상태, 집단 소속, 권위, 가치관 등을 나타내는 무언의 의사 전달체라고 할 수 있다.

복식의 변천은 한 사회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반대로 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복식에 관한 연구가 배제될 수 없다. 또한 한 세대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체계를 이해해야 하는 데,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다.

† 교신저자 E-mail : yilul@korea.com

모든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회관계와 사회 구조 및 사고의 구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대중가요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한 분야인 노래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향유해 왔다. 노래는 가사와 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체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노래의 창작자가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적절한 가사와 음에 실어 전달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노래 중에서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노래는 '유행가요'이다. 유행가요는 가사가 첨가되어 있음으로 해서 언어의 인식성에 기반해서 체계적 측면보다 인식적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사회의 시대상을 표현하는 유행가요의 가사에 나타난 복식표현에 관하여 고찰하고, 유행가요 가사 속의 복식이 지닌 상징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행가요 가사 속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을 연구한 이수진·한명숙(1996)<sup>1)</sup>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20년대부터 1994년도에 발표된 유행가요를 분석하여 가사 속에 표현된 의복의 시대 상징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1995년 이후에 발표된 많은 유행가요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가사 속에서 보여지는 복식표현과 그 상징성을 파악해보는 연구가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복식의 상징성

G. H. Mead는 "사람에게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데, 그것은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 마음은 주변

의 대상(물)에게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찾고, 언어라는 의사소통의 상징적 수단을 이용하고, 추상적 상징을 해석할 능력을 지녔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할 힘을 가지고 있다"<sup>2)</sup>고 하였다. 또한 그는 '마음'을 내부의 상징적 전달어라고 하였으며, '자아'는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하나의 지각 있는 사물이라고 하였고, "일단 한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면 이미지와 사물은 상징에 의해 명명되어질 것이고, 의식은 내적 대화이며, 무언의 의사전달이다. 반면에 사고는 개인적인 경험이며, 의미 있는 상징(significant symbols)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고는 일반화된 다른 행동의 관점에서 체계화된 행동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Mead의 이론에서 '의미 있는 상징'이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극시킬 수 있는 반응이나 태도와 똑같은 반응과 태도를 자아 속에서도 일으키는 제스처를 뜻한다. Mead가 주장한 '의미 있는 상징' 중의 하나가 복식이다. 대부분의 상징은 언어로 전달되지만, 어떤 것은 제스처, 동작, 그리고 사물과 같이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 상징은 한 문화 내에서 공유된 의미를 갖는다.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공유된 의미를 갖는 복식의 상징은 사회에서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복식은 시각적 상징이나 무언(無言)의 상징의 사용을 통하여 의사전달을 하는 '무언(無言)의 언어(言語)' 중의 하나이다. 복식은 성, 연령, 직업, 국적, 사회적 계급, 종교, 집단 소속, 권위, 가치관 등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복식에 사용되는 상징성의 의미가 잘 이해된다면, 상징은 관찰자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sup>4)</sup>.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상징능력으로 인하여 인간은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욕구 등을 창조하며, 복식에는 이러한 욕구가 상징적으로 잘 표출되어 있다. 그러나 복식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서 복식상징은 다양하고 다의적이다<sup>5)</sup>.

- 1) 이수진, 한명숙, "유행가요가사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권 1호 (1996), pp. 43-56.
- 2) 김경동, *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4), pp. 103-104.
- 3) Mead George Herbert,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N.Y.: MacMillan Cpo. and Free Press, 1968), p. 85.
- 4) 정현숙, 김진구, "현대 우리 나라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6권 3호, p. 549.
- 5) 김애련, 김진구, "전통설화에 나타난 복식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상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4호, p. 422.

2. 유행가요에 나타난 복식 표현

1) 언어와 유행가요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해석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우리가 세상을 사고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있기 때문이다<sup>6)</sup>.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집단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한 사회 안에서조차 지역과 여러 가지 사회적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언어는 또한 인간에게 추상과 사고의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인간도 사물, 행위, 또는 추상적 개념에 대하여 사회에서 약속한 바의 동일한 영향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의사 전달을 한다<sup>7)</sup>.

우리는 늘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살아간다.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노래 중에서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노래는 '유행가요'이다<sup>8)</sup>. 이러한 유행가요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문화와 같은 시대적 배경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고전 음악은 멜로디의 진행만으로 순간적 공간적 공간을 마련해 주지만 대중가요는 가사가 첨가되어 있음으로 해서 언어의 인식성에 기반해서 체험적 측면보다 인식적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sup>9)</sup>.

"대중가요와 유행가는 그 사용시기가 다를 뿐 같은 술어이다"라고 하면서 현대적 맥락에서 논의 할 때는 "유행가", 근대적인 맥락에서 논의할 때는 "대

중가요"라고 지칭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유행가와 대중가요를 동의어로 취급하며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래는 가사와 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체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노래의 창작자가 노래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이며, 노래 수용자는 노래를 듣거나 부름으로써 창작자의 의사에 접하게 된다. 따라서 노래는 가사와 곡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다<sup>11)</sup>. 노래는 한사람의 창작자가 악보에 옮겨놓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와 행위자의 만남을 전제로 하며 창작자의 행위와 노래부름의 행위가 하나의 사회적 체험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공통의 정서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탄생하는 것<sup>12)</sup>이라고 한다.

2) '60년대 이후의 유행가요에 나타난 복식 표현

1960년대 유행가요 속의 '빨간 마후라', '노란 셔츠', '단벌 옷', '백타이' 등은 물자가 부족한 어려운 속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경제 건설의 밝은 희망들이 잘 나타나 있다<sup>13)</sup>.

1970년은 청년문화가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서 현대 한국 대중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다. 1970년대 초반은 일제시대부터 우리 민족에게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쳐 온 트로트와 50-60년부터 유행해 온 이지 리스닝 노래가 풍미하던 시기였다<sup>14)</sup>. 1970년대의 대중가요 가사 속의 '긴 머리카', '짧은 치마', '꽃 땀기' 등의 복식 표현들은 긴 머리카를 잘리거나, 짧은 치마를 입어 경찰에 잡히고 소비봉조가 만연했던, 당시의 시대상

6) 수잔 카이저, *복식사회 심리학*, 김순심의 역 (서울: 경춘사, 1991), pp. 182-214.  
 7) 한상복 외, *문화 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p. 329-330.  
 8) 박성진, "예술의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매체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1.  
 9) 박윤후, *해방 후 대중가요의 사회사 노래(2)*, (서울: 실천문화사, 1995), p. 122.  
 10) 이노형, "한국근대 대중가요의 역사적 전개과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 7.  
 11) 이수진, 한명숙, "유행가요가사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권 1호 (1996), p. 45.  
 12) 김창남, *삶을 지향하는 노래 '노래 운동론'* (서울: 공동체, 1986), p. 5.  
 13) 이수진, 한명숙, *Op cit.*, p. 50.  
 14) 노영해, "과거 30년 동안의 한국대중가요의 주제들," *세계음악학회* 5권 1호 (2001), p. 182.

을 풍자한 것들이 담겨 있고, 날로 각박해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sup>15)</sup>.

1970년대가 다양한 장르가 공존한 시기였다면, 1980년대는 “조용필”이라는 대형 스타가 등장하여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조용필”은 약 10년 동안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많은 히트 곡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유행가요에는 ‘배낭’, ‘무명치마’, ‘베적삼’, ‘წყ거나 찢어진 청바지’, ‘가죽잠바’ 등이 등장하며, 거대해지는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 자연과 가족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과 그리움이 표현되어 있다<sup>16)</sup>.

1992년도에는 이른바 ‘신세대’라는 새로운 화두가 대중문화계를 중심으로 전 문화계에 영향을 끼쳤다. “서태지”라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대중가요는 신세대 문화의 중심부가 되면서 그 참신함과 도발성으로 여러 문화계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에게 새롭고 진보적인 자극을 주었다.

1990년대 이전시대의 유행가요 속에는 패션의 변화나 경향이 단편적으로 나타났지만 이 시대의 유행가요 속에는 유행경향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획일주의를 거부하고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시기의 유행경향<sup>17)</sup>이 명확히 드러나는 가사들이 그전 시기보다 많이 나타났다. ‘긴머리와 긴치마’를 대신한 ‘짧은 머리와 찢어진 청바지’ 속에는 이전의 긴머리와 긴치마가 아닌 찢어진 청바지라는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유행이 보여진다<sup>18)</sup>.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사회의 시대상을 표현하는 유행가요의 가사에 나타난 복식표현에 관하여 고찰하고, 유행가요 가사 속의 복식이 지닌

상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식’이라는 용어는 의복, 장신구, 화장(메이크업)뿐 아니라 머리형태와 머리카락의 색상, 복식에 수반되는 행동까지 포함하며, 장신구에는 신발, 가방, 지갑 등이 포함된다. 외모는 얼굴이나 신체특성(체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연구방법은 1995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발표된 최근의 유행가요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된 연도의 방송횟수와 인기순위, 연말 가요제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상위 100곡씩을 조사하여 총 700곡의 유행가요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유행가요들을 노래가 발표된 연도별로 수집·정리하여, 유행가요 가사에 포함된 내용 중 복식에 관한 표현을 추출하여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 IV. 최근 유행가요 가사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

### 1. 1995년도 발표곡

1995년도에 발표되어 유행된 대중가요 중에서 복식표현이 등장하는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터보의 <검은 고양이>, 편승엽의 <찬찬찬>, 아깁없이 주는 나무의 <유년시절의 기행>,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이 조사되었다.

<검은 고양이>에 나오는 ‘새빨간 의복’은 새빨간 색상으로 도발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여성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찬찬찬>의 ‘빨간 립스틱’도 여성미를 강조하며 섹시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찬찬찬>은 늦은 시간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인을 묘사한 곡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와 같은 붉은 색상은 유행가요 가사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상으로 빈번하게 쓰여지고 있는 색상이다.

<유년시절의 기행>에서 ‘손때 묻은 가방’과 ‘까

15) 이수진, 한명숙, *Op cit.*, p. 52.

16) *Ibid.*, p. 52.

17) 박순양, “한국 남성복의 변천에 대한 연구-1945년 이후의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 35.

18) 이수진, 한명숙, *Op cit.*, p. 53.

만 교복'은 유년시절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말해준다. 이처럼 지나간 추억을 회상할 때 당시의 의복이나 악세서리를 등장시킴으로서 그 시기와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혼란스러웠던 유년시절의 방향에 대한 기억을 '까만 교복'으로 표현함으로써 암울한 인상을 주고 있다.

<플라스틱 신드롬>에서는 획일적으로 보여지는 대중의 이미지를 '너를 천사로 만들 패션'이라 노래하며, 남과 다르게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며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자고 노래하고 있다. TV를 보며 스타들의 패션을 추종하며 똑같은 얼굴로 꾸미려 말고 서로 비교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1996년도 발표곡

1996년도에 유행한 가요 중에서 복식표현이 쓰여진 가사를 조사한 결과, 디제이덕의 <여름 이야기>, <미녀와 야수>, <나의 성공담>, 노이즈의 <성형미인>, 김진모의 <빨간 우산>, 클론의 <난>, 비비의 <비련>, 솔리드의 <천생연분>,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에서 복식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났다.

<여름이야기>와 <좋아 좋아>에서 보여지는 여성들의 '까만 생머리'와 '생머리 휘날리며'는 남성들이 '아름답게' 느끼는 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다. 남성은 생머리의 여성을 이롭고 청순하게 생각하여 선호하고 동경하므로, 최근까지도 검은 생머리는 사랑스런 여성상으로 묘사되어 노래 불리며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1999년도에 발표된 <관찰>의 '아름답게 빗어 내린 머리'와 2000년도에 발표된 <키스>의 '검은 머릿결'에서도 보여진다.

<미녀와 야수>에서는 '탈의(脫衣)! 탈의!'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며, 함께 옷을 벗고 파티를 즐기자는 내용의 가사가 쓰여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대담한 표현을 하는 내용의 가사가 유행가요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나의 성공담>의 가사를 살펴보면 '내 얼굴은 진짜 큰바위 얼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취향을 엿볼 수 있다. '큰바위 얼굴'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굴크기가 큰 사람을 놀리는 표현으로 쓰인다고 한다. <악몽>에 나타난 '귀엽고 까만 너의 얼굴이 좋아'에서도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미적 취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백옥같이 흰 피부가 보편적인 미인의 기준으로 쓰여졌으나, 선댄(sun-tan)의 보급화로 검은 얼굴도 매력적으로 표현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형수술의 보편화로 인해 획일적으로 가공된 미인들의 모습을 비판한 내용의 <성형미인>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공주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유행하였다.

<천생연분>에서는 소개팅을 나가는 남성이 심리를 묘사하였는데,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경써서 웃도 입고 머리도 하고' 준비를 하는 내용의 가사이다. 또한 '예뻐오면 키도 컷으면 좋겠어'처럼 큰 키의 여성을 선호하는 남성의 심리를 살펴 볼 수 있다. 큰 키는 여성의 현대적인 이미지이며, 남성에게 여성의 신장에 대한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빨간 우산>에서 빨간 색상의 이미지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 준다. 가사 속의 '보라빛 꿈결'과 함께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유행가요 가사 속에서 구체적인 색상을 제시하여 대중에게 색채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유행가요 가사 속에 나타나는 색상들은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 빠른 연상작용을 위하여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원색이 빈번하게 쓰여지고 있었다.

<난>의 가사 속에 나타나는 내용은, 애인에게 '신발을 사주면 떠난다'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사준 구두를 신고서'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간 연인을 보며 그러한 속설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가사가 쓰여있다. 연인들 사이에 '신발'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데, '꼬신도 제 짝이 있다'는 속담에 나타나듯이 한 짝의 신발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연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군대간 애인을 배신하는 행위를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표현이 쓰여지며, 그러한 의미로 신부에게 주는 혼례용 함 속에 고무신만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유행가요 가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악세사리로 '반지'를 꼽을 수 있다. <비련>의 '네게서 받은 반지를 돌려주고' (96), <For your soul>의 '널 위한 이 반지 잃어버리지마' (99), <별써 일년>의 '니 왼손에 끼진 반지보다 빛난 니 얼굴 때문에' (2001), <선물>의 '하얗고 작은 손에 끼워진 반지' (2001), <짱>의 '별로 준 것도 없어 반지하나 뺏 하나' (2001)가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반지'는 연인들 사이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징표로 쓰여지는데, 반지는 영원을 상징하는 '원'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쉽게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장식되어지거나, 금이나 은처럼 높은 순도를 가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반지가 오랜 기간 변하지 않듯이 자신들의 사랑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미인 '반지'는 심장에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넷째 손가락에 착용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징물이 손가락에 끼워져 있다는 의미는 현재의 진행중인 사랑을 의미하며, '반지'를 빼거나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그 사랑이 끝나버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련>의 가사 속에서 나타난 '네게서 받은 반지를 돌려주고'에서의 '되돌아온 반지'는 이별을 상징하는 것이다.

### 3. 1997년도 발표곡

1997년도에 발표되어 유행된 대중가요 중에서 복식표현이 등장하는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체크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디제이덕의 <DOC와 함께 춤을>, 이기찬의 <Please>, 자우림의 <일탈>,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가 조사되었다.

<사나이 가는 길>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행위는 '이성과의 이별'보다 끔찍한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머리 깎기 싫어서 다시 생각을 고쳤지'에서 보여지듯이 젊은 군인들의 짧은 헤어스타일을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에서는 멋진 옷을 보고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고픈 심리를 나타내는 내용이 나타난다. '쇼윈도에 걸린 셔츠를 보면'과 같은 상황은 의류광고에서도 빈번하게 소개되어지는 상황 중에 하나이다.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될'에서는 지갑처럼 항상 소지하는 소품에 연인의

사진을 보관하는 젊은이들의 행위를 엿볼 수 있다.

<DOC와 함께 춤을>은 개사되어 당시에 대통령 선거의 홍보가요를 쓰일 만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곡이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노래하며 춤을 추자고 유도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복식에 관련된 표현들이 쓰여졌다.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은 직장용 출근복과 교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직종에 따라서는 직장에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남성들의 출근복의 형태가 획일적인 수트의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의복의 선택에 있어서 상황과 장소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의복뿐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의 선택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난 뒤통수가 안 이뻐도 뽀뽀 밀어오'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선호 스타일을 고집하고, 또한 그러한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기성세대로 대변되는 대머리 아저씨에게까지 전파시키려 하고 있다. '반짝 대머리 옆머리로 속알머리 감추려고 애써요', '억지로 빚어 넘긴 머리 약한 모습이에요, 뽀뽀 밀어오'.

정수리부분의 대머리를 가리기 위하여, 옆머리를 길게 기른 다음 부자연스러운 가르마를 연출하면서 빗어 넘기는 헤어스타일은 대머리의 중년남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머리를 억지로 가려보려는 기성세대를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약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가요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어 크게 유행되었다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연령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복식의 형태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도에 발표되었던 <오락실>의 대머리는 '약한 모습'이 아닌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비춰진다. 사회에 불만이 있는 듯한 삭발의 헤어스타일인 대머리를 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대머리'의 헤어스타일은 자신이 원해서 얻어지는 헤어스타일이 아니므로 측은한 이미지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Please>의 '까만 눈'과 '빨간 입술'도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청순한 눈동자와 여성미 넘치는 입술로 과거의 연인을 회상한다. 이 역시 유행가요 가사 속에서 빈번하게 보여지고있는 청순한 여성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은 다른 곡에서 보여지는 검은 생머리가 아닌 '갈색머리 향기도'란 표현이 쓰여졌다. 여성의 검은머리는 '흑단' 같은 머리결로 청순하고 동양적인 아름다움으로 비취질 수도 있으나, 최근의 염색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헤어칼라의 보편화 속에서는 검은색의 머리결이 자칫 답답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여성의 머리카라의 색은 항상 검은색으로 표현되던 노래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검은색의 머리를 연출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검은 머리결'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공감대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일탈>의 가사처럼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심심하고 따분한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노래한 내용이다.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에서 처럼 머리에 꽃을 단 여성은 아름다움과 여성스러움을 전달하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에는 생화로 머리를 장식한 여성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선보기 하루 전에 훌딱 삭발을'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삭발을 하고 선을 보는 여성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현대사회에서 '삭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도승의 복장이 아니라면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이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무기여 잘 있거라>의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에서도 나타난다.

#### 4. 1998년도 / 1999년도 / 2000년도 발표곡

1998년도에 발표된 쿨의 <애상>과 한스밴드의 <오락실>의 가사 속에 복식관련 표현이 나타났고, 1999년도 발표곡 중에는 조성모의 <for your soul>, god의 <관찰>, 2000년도 발표곡 중에는 잭스키스의 <예감>, 컨츄리 꼬꼬의 <키스>에서 복식에 관련된 표현이 조사되어졌다.

유행가사 속에 나타난 복식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복식용어 한 두 마디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애상>의 '웨딩드레스 입은 니 곁에 다른

사람이'를 살펴보면 쉽게 결혼식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웨딩드레스는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는 백색의 의상으로 결혼식을 상징하는 의복 중에 하나로 쓰일 수 있다.

<예감>의 가사 속에는 '하얀 앞치마'를 입은 여성과 '비뿔어진 넥타이'를 착용한 남성이 등장한다. 앞치마는 여성들이 집안 일을 할 때 착용하는 것이므로 '하얀 앞치마'는 사랑스러운 신부를 의미한다. 흰색은 순결, 청결, 성스러움을 상징하고 앞치마는 가정에 대한 봉사, 집안에서의 내적인 활동을 말한다. '넥타이'는 전형적인 남성을 상징하는 악세서리로 바깥일을 나타낸다. '비뿔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행위는 신혼부부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 5. 2001년 발표곡

2001년도에 발표되었던 곡들 중에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일년>, 김장훈의 <미안해>, 홍경민의 <침이야>, 유엔의 <선물>, 김건모의 <짱가>에서 복식관련 표현이 쓰여졌다.

<벌써 일년>에서 '워손에 끼워진 반지'는 여성의 결혼 여부를 상징하며, 결혼한 여성에게 다가갈 수 없는 남성의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미안해>의 '터틀넥 스웨터'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비록 사랑은 끝이 났지만, 웃은 남아서 지나간 사랑을 추억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노래한다. '터틀넥 스웨터'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지웨어로 <침이야>에서 나타난 '양복'과는 반대되는 이미지이다.

<침이야>의 '양복'은 편안함이나 착용감보다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싶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려입는 의상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이들의 심리를 나타내 주고 있다. '힘들게 길렀던 머리'도 '당장'자를 만큼 사랑하는 여성의 의견은 남성의 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995년부터 2001년에 발표되었던 유행가요 가사 중에 나타난 복식관련 표현들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이후로 갈수록 유행가요 속에 나타난 복식과 관련된어

〈표 1〉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표현

분 류	내 용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복식표현(발표년도)
의 복	'새빨간 의복이 멋지게 어울려' (95) '까만 교복을 입던 난 혼돈스런 날을 보내며' (95) '너를 천사로 만들 패션' (95) '오늘밤 너와 나 단둘이서 탈의 탈의' (96) '쇼윈도에 걸린 셔츠를 보면' (97)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97) '청바지입고서 회사에 가도',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97) '웨딩드레스 입은 니 곁에 다른 사람이' (98) '하얀 앞치마입고', '나의 비틀어진 넥타이까지도' (00) '내게 어울릴 것 같다며 수줍게 내민 터틀넥 스웨터' (01) '평소엔 불편해 안 입던 양복도 멋있게 보이려고 차려입고' (02)
헤어스타일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 머리' (96) '생 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96) '군대갈까 했지만 머리깎기 싫어서' (97) '뒤통수가 이뻐야만 뽀뽀 미나요', '억지로 빗어 넘긴 머리 약한 모습예요' (97) '반짝대머리 옆머리로 숙알머리 감추려고 애써요', '감추지마요 뽀뽀 밀어' (97) '갈색머리 향기도' (97)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척 춤을', '선보기 하루 전에 훌쩍 삭발을' (97) '산 속으로 머리 감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97) '대머리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98) '아름답게 빗어 내린 머리' (99) '검은 머릿결은 정말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00) '안어울린단 너의 한마디에 그날로 당장 난 머리를 잘랐지' (01)
메이크업	'차디찬 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95) '그녀의 까만 눈을 기억해 축축한 그 빨간 입술도' (97) '설레이는 맘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01)
악세서리	'손때문은 가방과' (95) '빨간 우산을 쓴 소년 봤어' (96) '신발을 사주면 떠난다는 그 애긴' (96) '네게서 받은 반지를 돌려주고' (96) '너의 지갑 속에' (97) '널 위한 이 반지 잃어버리지마' (99) '날으는 마법 용단을 타고' (00) '니 왼손에 끼진 반지보다 빛난 니 얼굴때문에' (01) '하얗고 작은 손에 끼워준 반지' (01) '별로 준것도 없어 반지하나 뽀하나 달랑 구두 두개' (01)
외 모	'내 얼굴은 진짜 큰바위 얼굴' (96) '성형미인들은 지리를 활보하지만' (96), '예뻐지면 키도 컸으면' (96) '귀엽고 까만 너의 얼굴이 좋아' (96)



진 표현의 가사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5년 이후에 유행된 가요들의 가사가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자기감정을 묘사하는 방식의 가사가 많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도 추상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공간을 얻어내야 하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대중가요이므로, 외모나 복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면, 그 노래를 듣고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대로 접어들수록 복식에 개성화 다양화의 추구로 인하여, 어떠한 복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추상적인 느낌과 이미지의 전달이 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노래 속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하여 주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범위를 유행가요가 발표된 연도의 방송횟수와 음반판매량을 근거로 한 인기순위 100위까지의 곡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10-20대 취향의 댄스·발라드 가요가 많이 포함되어져 트로트나 기타 다른 장르의 가요가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가요 가사 속에 나타난 복식의 표현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 V. 결 론

1995년도부터 2001년에 발표되어 유행한 대중가요 총 700곡 중에서, 가사 내용에 복식표현이 등장하는 노래를 조사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의복에 대한 내용은 단일품목으로도 상황과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교복', '웨딩드레스', '앞치마', '넥타이', '양복', '청바지', '타넬넥 스웨터' 등이 쓰여졌다. 이러한 유행가요 가사에 표현된 여러 의복들의 의미는 멋있고 책시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 자유의 갈망, 절두, 직업 등을 상징하였다.

둘째, 헤어스타일은 여성을 대표하는 헤어스타일로 '생머리', '긴머리', '짧은 머리'가 사용되었고, '갈색머리'도 등장하였다.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묘사는 '대머리'와 '삭발' 등의 표현이 많아, 여성 헤어스타일의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표현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아름다운 이미지의 상징들로 청순하고 사랑스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남성들의 대머리는 혐오스러움, 측은함, 나약함, 비겁함 등을 상징하였다. 마지막으로 삭발한 머리의 사회적 의미는 남성이 군대를 입대를 한다거나, 속세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족과 반항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셋째, 메이크업에 관한 내용은 '빨간 립스틱'과 '빨간 입술', '까만 눈'으로 모두 사랑스러운 여인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여졌으며, 모두 여성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 주었다.

넷째, 유행가요 가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악세서리로는 연인들의 애정관계에 중요한 의미로 빈번하게 이용되어지는 '반지'가 가장 많이 쓰여졌고, '지갑', '우산', '신발', '뺨', '구두'도 쓰여졌다.

유행가요 가사 속에 나타난 '반지'의 의미는 진행 중인 사랑, 결혼의 여부, 구속, 영원한 사랑 등으로 의미되어졌다. 그 외의 '신발', '뺨', '반지', '구두'로 사랑하던 남·녀 사이에 주고받던 선물들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유행가요 가사의 내용 속에서도 '큰 키'와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미의 선호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큰바위 얼굴'은 부정적 외모의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큰 키'는 긍정적 외모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사 속에서 나타난 색상으로는 '새빨간', '빨간', '까만', '하얀', '갈색'이 쓰여졌는데, '빨간' 색상은 모두 여성스럽고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으로 쓰여졌으며, '까만' 색은 머리카라의 색상을 나타날 때에는 매력적인 이미지로, 의복의 색상에 쓰였을 때는 우울하고 혼돈스러운 느낌으로 나타났다. '하얀' 색은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갈색'도 매력적인 헤어스타일을 나타내주는 색상으로 쓰여졌다. 유행가요 가사에 나타난 색상들은 각 색상이 주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일 색명으로 쓰여졌다.

이처럼 최근 유행가요 가사 속에 나타나는 복식의 상징은 현 시대의 시대적 배경,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타일,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 현대 복식의 변천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서, 복식이 지닌 상징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김경동(1984).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 강동학(2001). “한국 대중가요의 종합적 검토-19 세기 이후 대중가요의 동향과 외래양식 이입의 문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권 1호.
- 김애연, 김진구(2002). “전통설화에 나타난 복식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상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4호.
- 김영준(1994). *한국가요사이야기*. 서울: 아름출판사.
- 김창남(1986). *삶을 지향하는 노래 - 노래 운동론 -*. 서울: 공동체.
- 노영해(2001). “과거 30년 동안의 한국대중가요의 주제들.” *세계음악학회* 5권 1호.
- 박윤후(1995). *해방 후 대중가요의 사회사, 노래(2)*. 서울: 실천문화사.
- 박성진(1993). “예술의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매체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순양(1992). “한국 남성복의 변천에 대한 연구 -1945년 이후의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수잔 카이저(1991). *복식사회 심리학*. 김순심의 역. 서울: 경춘사.
- 이영미(2001). “한국 대중가요의 종합적 검토-대중가요 연구에 있어서 균형 잡기-.”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권 1호.
- 이수진, 한명숙(1996). “유행가요가사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권 1호.
- 이노형(1992). “한국근대 대중가요의 역사적 전개과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일(2001). “한국 대중가요의 종합적 검토-1930년대 유행가 가사 고찰-.”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권 1호.
- 정현숙, 김진구(1998). “현대 우리 나라 유니폼에 나타난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6권 3호.
- Mead, George Herbert(1968).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N.Y. : MacMillan Cpo. and Free Press.
- [www.nowmusic.co.kr](http://www.nowmusic.co.kr)
- [www.maxmp3.co.kr](http://www.maxmp3.co.kr)
- [www.chosun.com](http://www.chosun.com)